

제10회 아산서평모임/ 한석정 저 『만주 모던 : 60년대 한국개발체제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2016) 비평/ 윤해동

‘만주 모던’ 혹은 ‘조선 모던’ : 식민주의와 근대의 관계 읽기

세번째 '만주붐'과 국가론 연구

한석정 교수(이하 호칭 생략)가 1999년에 동아대출판부를 통해 출간한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2007년 개정판)은 한국에서 세 번째 ‘만주 붐’을 일으키는 신호탄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의 출판과 같은 시기인 1998년 만주학회가 창설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학술지『만주연구』가 간행되었는데, 한석정이 이 모든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은 물론이다. 이런 일이 있기 이전까지, 만주는 한국 학계에서 ‘망각’ 혹은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었다. 사실로서 존재하지 못했던 만주 특히 ‘근대 만주’를 사실적 탐구의 대상으로 부상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한석정이었다.

근대 이래 한국에서는 적어도 두 번의 ‘만주 붐’이 있었다. 첫 번째의 붐은 1930년대 초반 일본이 만주를 무력으로 점령한 이후 일어났다. 그 실질을 둘러싸고 학계의 논란이 있지만, 기업인을 위시하여 많은 조선인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꾸며 만주로 몰려갔던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 붐은,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지만, 1960년대 이른바 ‘만주 웨스턴’ 영화의 붐과 함께 도래하였다. 이때의 만주 붐은 환상 속의 붐이었고, 분단과 냉전의 아픔을 ‘상실한 땅’에 대한 욕망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낭만적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이런 두 번의 만주 붐이 당시의 정권에 의해 적절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한석정이 불러온 만주 붐은 학문적인 것이었다. 마침 냉전이 해체되고 중국과의 교류가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일어난 학문적 만주 붐은, 근대 만주를 보는 시각을 크게 교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저자의 시카고대학 박사학위 논문과 이를 수정하여 출간한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은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 학계의 만주연구에도 커다란 충격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국가의 효과’를 중심 개념으로 삼아 진행한 저자의 ‘만주국’ 연구는 국가론에 대한 평자의 시각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만주국을 ‘괴뢰국’ 혹은 ‘僞滿洲國’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던 한국학계의 ‘민족주의적 국가론’ 연구 수준에 비춰볼 때, 저자의 ‘만주국 연구’ 혹은 ‘국가론’은 ‘외계인’이 주는 충격에 비견할 만한 것이었으리라!

『만주 모던』은 저자의 첫 번째 저작 이후, 15년 이상의 학문적 온축이 담긴 노작이자 역작이다. 저자의 시야와 논의는 동과 서를 함께 통론하며, 시간의 전후를 자유로이 오간다. 그런 점에서 다양하고 박학하지만, 독자에게 까다롭게 다가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도 한다. 또 제호를 보고 곧바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번 책은 만주의 근대(성)에 관한 연구 혹은 만주의 근대(성)가 1960년대 한국의 개발체제와 맺는 관련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만주국의 국가론 연구가 근대(성) 연구로 연장되고, 그것이 한국의 경제개발 혹은 근대(성)에 관한 탐구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저자에게 근대를 중심으로 한 이번 연구는, 기존의 국가형성 연구에서 결여된 부분 즉 식민주의 확산과 후발주자적 관점(이점과 속도)를 일깨우는 의도를 갖는 것이다.(443)

그러나 저자가 내세우는 ‘만주 모던’은 “식민주의와 근대가 맺는 복잡한 관계”를 다룬다는 점(449)에서 특히 중의적으로 읽힌다. 하나는 만주국에서 특유의 근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주국 특유의 근대가 ‘시간을 격절하여’ 1960년대 남한에서 실현 혹은 재현되는 양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번 평자의 비평은, 이처럼 중의적으로 읽히는 ‘만주 모던’의 두 양상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할까 한다.

‘만주 모던’ : ‘하드 모던’(hard modern) 혹은 ‘소프트 모던’(soft modern)

저자에게 만주 모던은 ‘건설과 동원, 경쟁 등 압축 성장에 적절한 경직성 근대’로 규정된다. 다시 말하면 만주를 통해 한국에 전달된 강박적 근대와 생존, 개척 등이 혼합된 실천적, 이념적 구성물이라는 것이다.(69) 그런 점에서 만주 모던은 20세기의 전후시기를 연결하는 통시적 개념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모던’(두아라)이 19세기 말 일본을 중심으로 서양의 근대담론과 실행에 관한 동아시아의 지역적 조율로서 공시적 성격을 갖는 것과 비교된다.(69)

그러나 저자가 만주모던의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경직성 근대’의 내용은 상당히 모호한 편이다. ‘경직성 근대’를 말 그대로 읽는다면 딱딱한 근대 혹은 굳은 근대(hard modern)로 볼 수 있겠으나, 막상 내용은 더욱 복잡하다. 첫째, 저자의 만주모던은 하이 모던(high modern)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만주국의 건설과 1960년대 ‘건설국가’의 형성을 하이 모던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주모던이 하이 모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둘째, 미국이 한국 발전국가의 틀과 환경을 규정한 반면 ‘만주국식 에토스’가 내부동력이 되고 있었다고 본다든지(171), 발전국가 지도자들의 뇌리 속에 켜켜이 쌓인 기억(178)이 발전국가의 근대를 규정하고 있었다고 보는 점에서(178), 만주 모던은 일종의 에토스 혹은 기억이 된다. 그렇다면 만주 모던은 하드 모던이 아니라 소프트 모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의 근대 규정을 교차시켜 만주 모던을 규정해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근대의 종합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하이 모던≒하드 모던(경직성 근대)==>한국판 국방국가(4장)와 건설국가(5장), 2) 소프트 모던≒액체 근대(liquid modernity, 지그문트 바우만)==>신체의 각성(6장), 재건의 노래(7장)의 종합이 바로 만주모던인 것이리라.

한국의 재건체제를 통한 국가형성에서 일본의 식민국가 경험은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된다. 마치 조립형 주택을 만들 듯이, 전후 한국에서 국가는 용이하게 형성되었다는 것이다(163) 그리고 남한 국가형성의 세 가지 자원은 식민국가, 미군정, 그리고 만주국의 경험이라고 본다.(160-168) 만주국은 일본의 식민국가 경험과 현대 한국을 연결하는 고리라는 점에서 중요

하다. 만주는 특히 한국과 일본의 사이에서 남성성의 발현과 진화를 돕는 긴요한 자원이었다고 보는데(176-188), 이는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가 여성성의 재현으로 간주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적이라고 하겠다. 남성성의 재현이라는 점에서 만주와 조선은 매우 다른 길을 걸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식민국가 조선에서 상대적으로 긴 시간의 식민통치를 겪으면서 안정적인 통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데 비해, ‘만주국’에서는 급속하게 ‘민간’의 폭력을 억압하고 국가의 기반을 마련해야 했던 현실에서 온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만주와 남한 ‘국가의 폭력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 베버적 국가론에 비추어 볼 때, ‘합법적 폭력을 독점’하는 기구로서의 국가 성립이라는 측면에서, 만주국과 한국은 모두 미숙했던 탓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만주국은 1932년에, 한국은 1953년에 전쟁을 겨우 진정시킴으로써, ‘법을 정초’하는 수준의 폭력을 행사했을 따름이었다. 그 이후의 국가의 폭력이 법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어떠한 것이었던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만주국도 한국도 국가형성과 관련해서는 ‘하드 모던’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리라.

한국의 계획경제 실시(254)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판 ‘국방국가’의 수립(291)을 만주의 경험에서 찾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 한 가지가 남는다. 군인과 테크노크라트의 경험에서 공통점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후진국’에서도 경제개발의 경험에서 일반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현실이 아닐까? 한국의 경험에서 독특한 것은 ‘개발독재’라고 하는 특유의 리더십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히려 만주국과 한국의 리더십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은 군인과 테크노크라트만이 독재의 기반이 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정한 수준의 대중의 지지 혹은 묵인이 있었다는 것은, 이른바 ‘대중독재론’이 아니더라도 누구나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던가? 토지수용법과 도시계획법을 핵심으로 하는(309) 불도저식 ‘건설국가’ 수립에서 한국형 하이 모던을 확인하고(332), 이를 만주국의 총합개발이라는 국토개발(302)에서 찾는 것 역시 매우 온당하다. 그리고 이는 국방국가 수립과 아울러, 만주 모던이 갖는 경직성 모던의 핵심이 된다. 그러나 만주 모던은 오히려 ‘경직성 모던’ 보다는 ‘부드러운 모던’에서 더욱 흥미로운 모습이 나타나는 듯하다. 저자가 말하는 근대의 에토스 혹은 개발의 기억과 관련된 근대이다.

위생의 근대성에 기반한 의료국가는 만주국에서 전형적인 모습으로 구축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340-349) 건강, 체육의 경험은 일본의 경험을 압축한 것이었으며, 강병론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었다.(367-373) 또 무용, 노래, 대중문화, 영화(滿影) 등의 분야에서 경험한 만주국의 문화적 에토스는 특별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7장)

만주 모던 혹은 ‘조선 모던’

만주 모던의 두 번째 측면 곧 1960년대 한국의 재건체제 형성에 만주국의 중요한 요소가 이월되었다는 문제의식(443)에 관한 것이다. 1930-40년대 만주와 1960년대 한국은 중첩적인 국면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논의(450)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언뜻 보면, 한때 일본에서 제기되어 유행한 적인 있던 ‘1940년 체제론’과 닮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野口悠紀

雄, 『1940年體制』, 東洋經濟新報社/ 성재상 역, 『여전히 전시경제하에 있는 일본의 경제구조』, 비봉출판사, 1996). 과연 일본에서 제기된 ‘넓은 문제의식’을 새롭게 해석하고 포장한 것인가?

과연 만주 모던이 1960년대 한국의 개발체제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 혹은 국가형성의 기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1/3 이상의 기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가? 오히려 저자의 개념 규정방식을 빌려, 식민국가 조선의 모던 곧 ‘조선 모던’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만주 모던이 아니라 조선 모던이 현대 한국에 미친 영향이 더 컸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우선 저자는 재건체제의 형성과 관련하여 식민지 조선은 ‘총력전체제’ 혹은(고바야시 히데오, 가스자가 묘사한) ‘징발 사회’ 아래 있지 않았다고 단언한다.(168) 그리고 다민족주의, 대규모 강제노동, 반인륜적 폭력(예컨대 731부대)도 부재했다고 부언한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저자도 강조하고 있듯이, 2차대전 시기의 동원시스템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었다. 이른바 ‘총력전체제론’(야마노우치 야스시山之内靖)에서는 미국 뉴딜체제 혹은 연합국의 동원체제와 나치즘, 일본의 파시즘 혹은 소련의 전체주의 사이의 동원체제가 유사성을 강하게 갖고 있었으며, 그것은 전후 복지국가 체제의 기원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총동원체제가 식민지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었던가 하는 문제는 논쟁적이다. 식민지에 강력한 동원체제가 구축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식민지 본국에서처럼 동원에 상응하는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다. 복지제공이라는 일종의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식민지의 동원은 가혹한 것일 수밖에 없다. 과연 조선의 ‘전시동원체제’는 만주국의 동원과 어떻게 같고 달랐던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이른바 ‘선만일어’ 혹은 ‘오족협화’에 대해 ‘내선일체’가 판정승을 거두었다고 보아(117) 만주국에서의 조선인 ‘이등공(국)민론’이 설득력이 있었다고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만주국에서 조선인 화이트칼라 지식인들의 입지가 강해질 여지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119-123) 그러나 그것은 조선 내부에서의 변화에 비하면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 모던’이라는 것이 설명가능한 개념이 될 수 있을까? 저자의 논의에 기반을 두고 살펴보자. 저자는 재건체제의 형성 및 국방국가의 수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에서 만주와의 관련성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려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것은 일본의 근대 혹은 조선의 근대와 상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만주 모던을 하드 모던과 소프트 모던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수 있겠다.

재건체제 혹은 한국판 국방국가를 지탱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이미 조선 내에서 경험한 것이었다. 예컨대, 유교적 교화의 경험은 식민지 전기간 동안 조선 내에서 강조되었던 것이었으며, 특히 향약 시행의 경험은 구체적으로 농촌진흥운동의 과정에서 변형-시행되었다. ‘가정의례준칙’이 정해져 강요되었으며, ‘신생활운동’은 1920년대 이후 주기적으로 되풀이되었다. ‘교육칙어’(1889)와 ‘황국신민서사’가 강요되었으며, 조선총독부의 농촌진흥운동은 근검, 절약을 모토로 조선인의 계몽운동과 경쟁하고 있었으며, 모범부락도 청년단 운동도 모두 핵심

적인 정책 혹은 경험을 이루는 것이었다. 저축운동 역시 만주에 못지않은 범위로 강요되고 있었다. 게다가 토지수용법과 도시계획법 역시 1920년대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또 조선 역시 식민지로서 제국의 실험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일본질소비료의 장진강, 부전강, 허천강 등에서의 조선수력전기 개발의 경험이 없었다면, 만주만이 아니라 일본의 수력발전 기술도 훨씬 지체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위생국가’ 혹은 ‘의료의 근대성’(340-349)은 조선에서 만주로 들어간 것이 한국으로 전해진 것도 있겠으나, 고토 신페이(後藤新平)를 통해 대만에서 확립된 의료 근대성은 조선으로 들어와서 정착해 있었으며 그것이 한국으로 이어지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조선의 위생경찰은 이미 1910년대부터 불량한 우물을 메우고, 쥐꼬리를 모으며, 파리에 상금을 걸고 있었다. 국가가 주도하는 속도전을 통하여 보건위생 시스템이 조선에서 강력하게 구축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총동원체기에는 예외 없이 ‘건민’ 형성을 통한 ‘強兵論’이나 라디오 체육 등을 통한 ‘連成論’ 등이 강조되었다. 그렇다면 소프트 모던에 기반을 둔 조선 모던이 해방후 한국의 국가형성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식민주의와 근대의 관계 읽기

저자가 만주 모던이라는 새로운 근대 개념을 통하여, 식민주의의 측면에서 근대의 성격을 다시 읽는 시도를 한 것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주 모던의 성격을 좀 더 섬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듯싶다. 만주 모던이 경직된 측면과 함께 부드러운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경직성 근대를 중심으로 한 만주 모던이 1960년대 한국에서 재현될 때에는 소프트 모던을 중심으로 한 ‘조선 모던’이 연속성을 가진 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두어야 할 것이다.

만주 모던이라는 개념 규정의 방식에 대해서 사족 한 마디! 만주라는 지역 개념을 통하여 통시적인 성격의 근대를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어쩌면 근대라는 시대규정보다는 ‘근대성’이라는 성격 규정이 지역 개념과 함께 사용하기에는 더 적합한 것이 아닐까? 시간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식민지의 경우에는 ‘식민지 근대’가 가능하겠으나, ‘조선 근대’는 좀 이상한 개념처럼 보이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이상)